

황토에 핀 꽃

_이경숙 (1977년 11월 서강대 시위 참여)

글 · 이창훈 dinari@hanmail.net

하루하루 일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라면, 30년 전 기억을 떠올린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3살, 내년이면 54살이고, 제가 대학에 들어 갔을 때가 75년이니까 30년이 더 되었잖아요? 그래서 서인지 아닌 다른 이유에서인지, 나도 모르게 살면서 ‘굉장히 기억을 안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음... ‘진짜 한 30년 동안 그 부분을 거의 내가 삭제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1975년 서강대에 입학하다

1975년은 박정희 20년 장기독재 폭압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였다. 유신헌법으로 영원할 것 같은 그의 철용성에 금이 가더니,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미 금이 간 곳에 ‘긴급조치’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막아 보려고 했지만, 대세는 어쩔 수 없었다. 민중은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였다. 73년 말에 함석헌·장준하·



백기완 등 각계 민주인사들이 참여한 ‘유신헌법개정청원 백만인 서명운동’만 보더라도 시작하지 일주일 만에 40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놀란 박정희가 ‘유신반대운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1·2호’를 발동하지 않았더라면 목표인 백만 명을 훌쩍 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꿈 많은 한 이화여고 학생이 서강대 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이경숙에게 대학은 낭만적인 곳이었다. 먼저 대학생이 된 언니가 새문안 교회의 야학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들려주면 너무도 부러웠고, 데모를 하다가 마포서에 며칠씩 잡혀있다가 온 집안을 별집 쑈셔놓은 듯 만들어 놓은 언니가 근사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1975년 서강대는 이경숙이 생각했던 대학가가 아니었다. 대학가는 암흑기였다. 언니에게서 봤던 ‘대학가의 자유로움’은 없었다.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학생들도 없었다. 경찰이 직접 대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감시했다. 심지어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남자경찰관이 여학생 화장실을 기웃거리기까지 했다. 교수와 교직원들은 가르치는 일

을 포기한 채, 학생을 감시 보고하는 정권의 끄나풀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입학하고, 3·4월 학교 다니고 서클 돌아다닐 때, 약간 ‘어... 공기 되게 나쁘네?’ 했는데... 5월이 되자 갑자기 학교가 한 달간 문 닫았어요. 그런 상황 다음에는 더 위축됐죠. 전 서클들도 위축되고, 학교 분위기는 옛 같아지고, 누구하고도 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정치적인 대화 자체가 언론뿐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 대화에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식하게 되는 상황을, 자기 검열로 또 의식하는 거죠.”

대학의 이러한 분위기에 실망한 이경숙이 해방을 느낀 곳은 제일교회였다. 일단 교회에서는 세미나를 할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조심스럽게나마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2학년이 되자, 향후 서강대 운동의 주춧돌이 될 76학번 신입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현재 한겨레신문사 기자로 있는 한승동을 비롯하여 이창호 안동환 조순실 등을 이경숙은 자신의 ‘해방구’ 제일교회로 데려왔다. 여기서 맺어진 인연들이 향후 서강대 학생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회과학 토론모임 ‘황토’를 만들게 된다.

77년 11월, 한 달 사이에 세 번의 시위가 일어난다

사실 이경숙을 만나게 된 것은, 77년 11월 서강대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세 차례 학생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당시는 일 년에 한 번 시위를 벌이기도 어려운 때였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완벽히 제한되고 있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이천 명도 안 되는 서강대에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의 시위가 연속해서 벌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1, 2차 시위는 우발적인 성격이 강했다. 1차 시위는 당시 민청학련운동을 경험한 세대가 복학한 뒤, 자유로운 캠퍼스 문화가 사라진 것에 반발하여 ‘계획되지 않은 데모’가 발생한 것이다. 며칠 있다가 발생한 2차 시위는 1차 시위에 연행된 구속학우를 석방하라고 외치며 데모를 벌였다. 이것은 민청학련투쟁이후 대학생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와 있었다는 증거였다. 이를 지켜본 황토의 멤버들은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즉자적인 투쟁이 아닌 조직적인 투쟁으로 보다 성과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시위는 사전에 준비되었으며, 유인물도 뿌려졌다. 또 사전에 주요 인물들에게 시위를 간접적으로 알려 참여를 독려했다. 이때 황토모임 구성원들의 정신적 지주인 이경숙은 후배들을 통해 몇 날 몇 시에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약속된 시간에 이경숙은 운동장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황토후배인 임영준과 김용진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대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경숙은 시위가 벌어지자 데모대에 합류하여 구호를 외치며 운동장을 돌았다. 그러나 애초에 계획한대로 시위가 진행되지 못했다. 처음 시위를 계획했던 장정수와 한승동은 강의실 시위도중 조교들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장정수는 말리는 조교들을 뿌리치고 피신을 했고, 한승동은 조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시위는 계획한 점거농

성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경찰의 진압에 눌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 시위를 통해 이경숙은 아끼던 네 명의 후배를 한 순간에 잃었다. 아직 2학년도 마치지 않은 어린 후배들이었다. 이경숙은 이들이 4학년까지 성장한 후에 나서주기를 바랬는데, 말릴 틈도 없이 '먼저 치고 나간 것'이다. 당시 시위 주동자였던 장정수(76학번, 한겨레신문사 전 편집인)는 시위를 벌이게 된 계기를 이렇게 구술했다.

“(1,2차 시위 이후)... 근대 뭐 반대한 사람들은 없었고요. 한참 이야기했죠. 당시에는 학생운동을 하면 언젠가 나도 구속될 것이라는 각오를 하잖아요. 그 시기가 대개 4학년인데, 저는 조금 이른 시기에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언젠가는 깨지는 건데, 상황이 무리였을 때 하자. 이번 시위가 서강대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세 번째 시위를 지켜본 이경숙은 답답했다. 애써 뿌려놓은 황토의 씨앗들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사그라지고 만 것이다. 서강대 학생운동 선배인 김선택도 78년 10월에 터진 '6개교 연합시위 미수사건'으로 학교를 떠났다. 다시 받을 일귀야했다. 다행이도 남아있는 여자후배들이 큰 힘이 되어주었다. 구속자들의 재판참가와 옥바라지부터 새로운 후배들 교육까지 솔선수범해 주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남아 있는 이들은 전보다 더 큰 불안에 휩싸이면서 먼저 떠나간 이들의 몫까지 떠맡아 학생운동을 진행해야 했다.

“...여러 그런 후배들과의 공간들을 조금 조금씩 비

집으면서 후배들을 일궈줬고, 그 힘들이 이제 77, 78, 79 이렇게 내려가면서 80년에 정체를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예요. 이 친구들이 학생운동에서 한 번도 빛을 본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운동사는 언제나 사건주동자들을 중심으로 70년대를 기술하고 있거든요”

남민전과 학생운동

1978년에 4학년이 되자 이경숙은 '서울지역여대생 모임'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모임이 서서히 정착되어 나갈 무렵인 1979년에 '남민전 사건'이 터지게 된다. 이 모임의 반수이상인 연루되어 감옥에 간 것이다. 결국 모임은 해체되었고, 또 다시 이경숙은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이후의 삶은 그녀만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운동권에서 봤던 굉장히 많은 선배들이 거의 80% 쯤 거기 달려 들어갔더라고요. 굉장히 손실이죠. 한국 사회운동에서 그만한 손실은 진짜 없어요. 어려운 시기에 학생운동을 경험한 이들이 사회에 나가 더 깊은 운동을 일구어 내줘야하는데, 또 학생운동 후배들의 방향을 잘 잡아줘야 80년대 신군부에 저항하는 밑거름이 됐을 텐데, 70년대와 80년 사이에 일정한 단절이 있다면 남민전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80년대 후배들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처한 거죠. 인력의 손실이기도 하고, 이념의 손실이기도 하고.”

잊을 수 없는 김의기 열사

이렇게 같이 활동했던 동지들이 하나둘씩 이경숙의

곁을 떠나갈 때, 우연한 자리에서 김의기 열사를 만나게 된다.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김의기 열사가 3학년에 농촌활동 대표를 맡았던 모습이 생생이 기억이 난다고 한다. 대표로서 책임성 있게 일하던 그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형제교회에서 하던 '농촌문제연구모임'이라는 유서 깊은 모임이 있어요. 뭐 운동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거쳐 간 곳이었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모임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학생운동의 관심이 농민문제에서 노동문제로 이동하던 시기였고, 학생운동도 개별학교 운동이 커지면서 교회를 통한 연합활동의 세가 약해지던 시기였거든요. 저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이 모임에 회장을 맡았던 것 같은데, 그때 의기를 데려오면서 회장 자리를 물려줄 책임자로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의기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죠. 정말 그렇게 꼼꼼히 신문을 노동 문제나 농민 문제를 다 스크랩 하고 공책에 발제문 다 적어 오는 애 처음 봤어요. 나 그... 그 답답한 인간.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라고 감동했죠.”

그러던 김의기 열사가 80년 5월 30일, 기독교회관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경찰 측에서는 '투신자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김의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자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80년 5월, 광주항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열사가 '동포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렸는데,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 건물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유서도 없는데다가 유인물의 마지막 구절에는 '내일 오전 정오에 서울역에 모여서 유신잔

당에게 철퇴를 내리자'는 문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아, 이게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의기라는 애를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너무나 치밀하고 꼼꼼한 준비 속에 있는 애이기 때문에... (중략) 광주항쟁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알릴 방안을 찾았겠죠. 그러던 중에 기독교회관에서 금요기도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찾아 간 거죠. 근데 취소됐죠? 아마. 내 기억엔? 근데 의기는 준비해간 유인물을 뿌린 거죠. 그래서 발각되는 과정에서 실갱이를 하다가 진짜 스스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몸싸움을 하다가 밀렸었을 수도 있고, 의기가 그날 거기서 '몸을 던지리라' 이렇게 하고 갔던 건 아니라고 확신해요.”

구술을 마치고 나서

이경숙은 학생운동을 마치고 학술운동과 농민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이어가다 현장을 떠나 현재는 멋지게 자라 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아들과 함께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아들도 곧 있으면 분가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그녀는 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일상일 뿐이다. 일상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을 있을 수 없다. 황토에 씨앗을 뿌리는 일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키워 잘 말린 허브잎사귀를 봉지에 곱게 담아, 마음이 닿는 사람에게 건네는 여유만 있어도 좋기 때문이다. *이창훈*

글 · 이창훈 | 경희총민주동문회 전 사무국장